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예타 최종 통과

목포신항에 15만6000㎡ 규모 도크 등 합정 정비소 구축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사업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는 21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서해와 남해, 제주해역 경비정의 적기 수리로 여객자원 보호 및 해양안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경 서부 정비창 건설사업은 목포신항 항만시설 설치예정부지 내에 15만6000㎡ 규모로 도크와 안벽 등을 설치해 해경 합정 정비소를 구축하는 대단위 국가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 동안 정책적 측면, 지역균형발전 측면, 경제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82억 원을 반영,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은 전국 섬의 65%, 해안선의

45%,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양안전관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목포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서해와 남해, 제주도 지역 운송 경비정 및 1000t 이상 경비정 수리를 맡게 된다. 경비정을 적기에 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여객자원 보호와 해양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로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3326억 원이고, 고용 유발효과는 2337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도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하남~장성 삼

계(15.4km·1803억)간 광역도로 사업도 2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하남~삼계 간 광역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기존 도로 수요가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체 도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 광주 하남~장성 삼계 구간을 포함한 광역도로 6건, 광역철도 2건, 광역버스 1건 등의 사업을 제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도시재생, 지역과 상생 방안 찾는다

광주시 오늘 문화전당서 거버넌스 구축 학술대회

광주시는 2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시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광주와 서울, 대전, 대구, 경기도 광역도시재생센터가 협력해 사·도별 도시재생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에 대해 공유한다. 도시재생의 구심점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동학술대회는 ▲최형선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경영지원실장의 '서울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최영은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대구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유형과 사례'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의 '광주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방향성'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각 주제 발표 후에는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을 좌장으로 8명의 시도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준우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정태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성현 대구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찬돈 경운대학교 교수, 오세규 전남대학교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 대표이 참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재정분권 방향 모색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자문단과 공동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진단하고, 지방재정 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과 구균철 경기도 교수는 각각 '혁신도시 정책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모색'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재정적 효과, 균형발전정책과 병행한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필요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박재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협의체 자문단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시·도 연구원으로 구성돼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화랑훈련 합동세미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19년 광주전남화랑훈련 합동세미나에서 통합방위위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소영민 제31보병사단장, 이성열 제3함대사령관,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통합방위위원회 250여명이 참석했다.

무안공항서 백두산 바로간다...中연길 노선 취항

제주항공 매주 수·토요일 운항

제주항공이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 노선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인 연길은 백두산 관광의 관문이며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 불린다.

이날 취항식에는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김재천 제주항공 부사장 등 항공

사 관계자, 전남도 및 무안군 관계자가 참석해 승무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연길 신규 취항을 축하했다.

연길 정기노선은 무안에서 오전 8시 45분 출발해 10시 25분 연길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항공편은 연길에서 오전 11시 25분 출발해 오후 3시 15분 무안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매주 수·토요일 운항한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연길은 모아산 산림, 진달래광장, 중국조선족민속원, 공룡

박물관 등 볼거리가 가득해 최근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제주항공의 연길 정기노선 취항이 최근 일본 노선 감축·중단에 따른 항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0월께 장가계 노선도 신규 취항하도록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낙후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대불·여수·광양·울촌 4곳

전남지역 낙후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열악과 청년·기술인력의 산단 취업 기피로 우수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기업 인력난과 산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단 근로자들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을 한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센터에는 문화, 주거, 복지, 목욕·판매시설 등 기업지원시설이 설치

된다.

전남도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산업상자원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불·여수·광양국가산단과 울촌 제1일반산단 등 4곳이 대상으로, 올해는 울촌 제1산단에 대해 우선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대불·여수국가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울촌 제1산단이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시작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
영광

기독교영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6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